

◀기쁜 우리 날들▶ 패전처리 전문 투수 영화 「슈퍼 스타 감사용」



야구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관중들은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자신의 팀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 둘 일어나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썰렁하고 어수선한 파장의 분위기...

그때 쓸쓸히 고개를 숙인 채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전처리 전문 투수, 감사용' 이라고 부릅니다

늘 지는 경기에 익숙한 그는 언제든지 지는 경기에만 투입됩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어김없이 꼭 질 경기에는 그가
마운드에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야구를 잘 모르는 어머니에게 그런 자신
의 처지를 애써 숨기고, 너스레를 떨어댑니다.

“엄마, 알잖아? 왜 그 유명한 홈런타자 김봉연...글쎄 오늘 내가 던진 볼에 손도
못 대는 거야.

죽상을 해가지구, 울러나는 꼴이란다...

나 참, 엄마가 꼭 한번 봐야 했는데... 한 번 오시라니까요?

엄마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야구를 하는지...

하긴, 그럼 이 장사는 누가 하나? 아무튼 그래서 불쌍해서 이따금 한 방씩은
맞아 주거든요, 제가. 그러면 고맙다고 연신 눈인사를 하며 나가더라고요.

자식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알듯 모를 듯, 미소만 지으면서 아들 감사용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시기만 했습니다.

경기가 없던 어느 날, 패전처리 전문투수 감사용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벽시계가 멈췄다며 건전지를 바꿔 달라고 말합니다.

서랍을 열고, 건전지를 찾던 아들은 우연히 한쪽 구석에 있던 한 다발의 종이묶
음에 눈이 갑니다.

그는 한동안 등을 돌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종이묶음을 가만히 어루만지다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
다.

서랍 한쪽 구석에 차곡 차곡 모아둔 몇 다발의 묶음은 아들 감사용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았던 야구장 티켓이었습니다.

◀이런 이름▶ 고도리 정류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반도
땅끝 마을 그곳에 울처럼 바람처
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거기는 그들 어머니의 젖이
생명되어 흐르는 땅입니다. 문명
의 도시를 찾아 떠났던 자들이
메고 지고 살았던 짐들을 황혼 되
어 모두 내려놓고는 떠나던 날의
단출향으로 하나 둘씩 마을초입의
정류소에 내립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2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6월 11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 -시인 용혜원-



늘 가난만 비바대는 깡마른 목사님이
건물 지하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월세 걱정을 하고, 주변 눈빛도 싸늘하지만 한데
세상살이는 점점 더 추워지지만 하고
발걸음하는 성도들도 얼마 안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쫓겨온 세월이 흘러가도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목사님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큰 교회는 점점 더 넓어지면 가고
그곳 목사님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등줄기엔 식은땀만 흐르는 듯 늘 힘없어 보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그럴까 늘 궁금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늘 서둘러 기도하고
설교하실 때에도 목청껏 소리치며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면
언제나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얼굴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늘 세월에 밝혀 지쳐 있는데
맥없이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더 쭉 빠집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고 세상 길이 너무 가파르기에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하기만 한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엔 상처만 더 깊게 파고 듭니다.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면 하늘을 보면서
자꾸만 자꾸만 궁금해져 하나님께 묻고만 싶어집니다.
목사님을 잘 부탁드리고만 싶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이고
하나님께 통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인품따라 행하기▶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열 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9(시84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40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35-42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2) "겸손의 사람 안드레"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10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차 량	안 내
28	김영길	강은미		본당: 김순자 정희자 현관: 김교섭 장현중
4	박일영	강현정	정덕수	
11	이광희	구미희	김교섭	
18	이규임	권용일	이광희	
25	이재영	권정호	박일영	

◆6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성령강림주일 성찬주일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13) 피택자교육(16)
25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일시> 13일(화) 오후 1시 .교회
- 모임: 제3남선교회 기도회 <일시> 13일(화) 저녁 7시
<장소> Duke English Academy(12 Huron Street, Takapuna)
- 피택자 교육 <일시> 16일(금) 저녁 7:30분
*기존 향촌직분자들에게서도 함께 참석하여 주십시오

『성전건축을 계획하면서』

*저의 목회 평생, 개척교회는 해도 성전건축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녀위해 무엇했냐고 물으면 첫째는 공부 잘하도록 이민까지 결단하여 뒷바라지 했고 둘째는 영혼교육을 위해 저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왔다고 말하십시오.

『성전건축에 대한 마음가짐』

- 소유욕과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놓고 출입하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 평생 믿다가 이 땅에 교회 하나는 남겨두고 천국 갑시다
이미 전에 섬기던 교회건축에 동참하셨던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믿음과 능력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교회건축을 하신것을 보시고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 성전건축헌금은 이름을 꼭 밝혀주십시오
세상떠난 후 자녀들이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의 이름을 보고 감격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 같이 먹어야 할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교회의 성전건축이 욕심으로 보인다면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많은 교우들의 선한 뜻에 비난은 삼가 주십시오.
- 기도할 때마다 꼭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당은 예수님은 없고 그저 보기에만 좋은 목석(木石)일 뿐입니다.

『성전건축헌금 방법』

- 작정하여 조금씩 드립니다
*매주 생활비를 절약하여 조금씩 꾸준히 헌금한다면 오랫동안 교회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한번에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립니다
*한번에 다 드린 후 교회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에 집중합니다.
- 자녀들에게 적은 액수라도 동참토록 합니다
*코콜리개 아이의 용돈 아낀 \$2 Coin, 아르바이트, Allowance 등에서 구별하여 드리면 자기가 하는 일에 선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용도변경 하십시오
*성전축기간동안은 명품 구입하고픈 마음을 짝퉁으로 대신하고 헌금드립니다. 웬만해선 우리들은 명품인지 짝퉁인지 봐도 잘 모릅니다
*술, 담배를 하던 분은 이 기회에 끊고 헛된 비용에서 거룩한 비용으로 용도 변경 하십시오.